



韓藥文化의 主體로서 더욱 學問을 發展시켜야 ...

會長：姜 容 鉉

이번에 우리 3000 會員의 힘을 모아 會誌를 創刊하게 됨은 우선 우리 스스로 學術의 重要性에 對한 깊은 認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分明히 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큰 것이라 여기며 會員 여러분과 함께 自祝해 마지 않습니다.

人間의 思考가 어떤 價値를 指向하든 간에 時間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健全한 思考를 行動의 軸으로 삼아 그것이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한 方向을 가져온 우리 韓藥專門人들은 韓藥文化의 主體로서 더욱 學問을 發展시켜야 할 義務와 함께 피나는 努力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습니다. 또한 發展된 만큼 그 眞價가 人類에게 實體的으로 寄與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그간에 여러가지 劣惡한 與件에서도 우리에게 負荷된 責務에 誠實해 왔습니다. 韓藥의 發展과 그 活用을 爲하여 主張해왔던 韓藥의 專門教育化가 이루어 졌으며 또한 韓藥師 制度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韓藥은 이제 다른 어떤 附隨學問이 아니며 또한 어떤 利益集團의 戰利品이 아닌 名實共히 한 分野學問 내지는 文化로써 專門的인 發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만큼 人類의 밝은 智慧가 되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이를 이어주신 先輩들의 崇高한 뜻을 살리고 아울러 거듭나는 우리의 意志를 結束하여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大韓韓藥」의 健實한 發展을 위하여 그 出發에서부터 긴 勞苦를 堪當해 내신 尹庚一 委員長을 비롯한 學術委員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精誠을 다하여 玉稿를 마련해주신 會員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謝意를 드립니다.

앞으로 「大韓韓藥」은 紙齡을 거듭할 수록 우리 社會의 값진 韓藥專門紙로서 그 比重이 높아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精誠을 다하여 이의 價値를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1997. 4. 20